

목조 사천왕 입상

사천왕은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신이며 아시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무거운 갑옷을 몸에 두르고, 튼튼한 봉과 창을 지니고, 각각 동서남북 방향을 향해 석가모니불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. 많은 경우 본존이 앉아 있는 중앙의 대좌(수미단) 주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수미단은 불교 우주론에서 물리적 및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는, 신성한 다섯 봉우리가 있는 수미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각 조각상은 10 세기 후반에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의 제자였던 간나 대사가 한 그룹의 노송나무로 조각했습니다. 사천왕상은 각각 개성적이지만, 금빛의 광륜을 뒤로하고 발밑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 같은 모양의 받침대가 있는 등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사천왕은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 무지하여 도깨비 같은 모습을 한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